

2025
고2 연매
비상

2025 고2 연매 비상 | 2(2) 문장의 짜임과 활용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흘문장과 겹문장에 대해 묻는 문항 이외에도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을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자세히 제시되지 않았기에 중등 과정에서의 문장 성분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문장 성분의 기본 개념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꼭 필요한 단원입니다.

1. 문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이 있다.
- ② ‘보어’는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를 붙여 나타낸다.
- ③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 ④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지만 경우에 따라 같은 관형어나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 ⑤ 문장을 이루는 요소로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2. 다음 중 앞 절과 뒤 절의 이어진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나는 웃었지만 그는 울었다.
- ②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 ③ 당근은 채소이며 굴은 과일이다.
- ④ 준호는 빵을 먹거나 김밥을 먹는다.
- ⑤ 지난여름을 너와 함께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3.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알았다.
- ㉢ 그는 지식의 깊이보다 마음의 깊이를 중시한다.
- ㉣ 날이 가물어 농사가 힘들어지거든 나를 불러라.
- ㉤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한다.

- ① ㉠: 앞 절과 뒤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갖고 있다.
- ② ㉡: 흘문장이 절의 형태로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안겨 있다.
- ③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다.
- ④ ㉣: 세 개의 절이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⑤ ㉤: ‘-어도’라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앞 절에 양보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 ① 봄비가 내려서 벚꽃이 다 떨어졌다.
- ② 내일 비가 오면 우리 팀은 등산을 못 갑니다.
- ③ 스타 선수를 영입했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 ④ 설사 태풍이 오더라도 나는 꼭 학교에 갈 것이다.
- ⑤ 날씨가 꽤 따뜻해졌지만, 나는 시험 기간이라 우울하다.

5.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다음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아,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라!
 ㉡ 눈이 내린다.
 ㉢ 그가 새 책을 샀다.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① ㉠에는 독립 성분이 사용되었다.
- ② ㉠과 ㉡에 포함된 주성분의 수는 같다.
- ③ ㉠에는 부사어, ㉢에는 관형어가 사용되었다.
- ④ ㉡의 서술어와 달리 ㉢의 서술어는 목적어를 필수로 요구한다.
- ⑤ ㉠과 달리 ㉡에는 주성분만 사용되었다.

6.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을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까요?

ㄱ. 그는 친구의 신발을 신었다.
 ㄴ. 형은 대학생이 드디어 되었다.

- ① ㄱ의 '친구의'는 '신발'을 꾸며주는 관형어입니다.
- ② ㄱ의 '신발을'은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목적어입니다.
- ③ ㄴ의 '드디어'는 서술어 '되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 ④ ㄴ의 '대학생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입니다.
- ⑤ ㄱ과 ㄴ의 주어는 모두 체언 뒤에 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신유형

문장 짜임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더불어 문장 성분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의 종류, 연결 어미의 종류, 절의 종류 등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들을 잘 숙지하고, 문장 성분에 대한 별도의 학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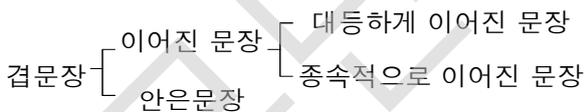
- ① 비가 와서 마음이 울적해졌다.
- ② 선생님은 고집이 매우 세시다.
- ③ 나는 계속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 ④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는 곧장 집에 갔다.
- 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8. 밑줄 친 절의 종류를 연결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가 귀가 크다. - 서술절
- ② 철수가 집에 가기를 바랐다. - 명사절
- ③ 그녀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 부사절
- ④ 영수가 외국에 다녀왔음을 자랑했다. - 인용절
- 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나무고등학교이다. - 관형사절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장은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단위이다. 문장의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 결합 상태에 따라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 홀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다. 문장이 이어져 겹문장이 될 수 있는데 겹문장의 종류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겹문장 중 ㉡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으로, 이어지는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지니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배경, 전화, 정도의 심화 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안은문장은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안은문장에 절의 형식으로 안긴 문장에는 명사절, ㉢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9. 윗글의 ㉠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 드디어 그가 국제 변호사가 되었다.
 ㉢ 동생이 내가 선물한 그림책을 본다.
 ㉣ 나는 매일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A.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친구는 음악을 좋아한다.
 친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나는 미술을 좋아한다.
 나는 미술을, 친구는 음악을 좋아한다.
 *친구는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한다.

B.
 키는 크나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나 키는 크다.
 *힘이 키는 크나 약하다.

C.
 비가 와서 습기가 많다.
 습기가 많아서 비가 온다.
 습기가 비가 와서 많다.

D.
 ㉠ 우리는 수영을 하려고/수영장에 갔다.
 ㉡ 우리는 수영장에 수영을 하려고 갔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나타냄

- ① 이어진 문장은 모두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바뀐다.
- ② 이어진 문장에서 중복된 성분이 있을 경우 모든 성분을 중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

- ③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달리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 ④ ㉠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뒤 절이 앞 절 안으로 들어가면 홑문장이 된다.
- 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도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지만,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미가 바뀐다.

11. <보기 1>은 ㉡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보기 2>의 관형사절 속에 생략된 명사(구)의 기능을 바르게 짚지은 것은?

<보기 1>

절이 관형사화되어 관형어로 쓰이게 되면 그 절을 '관형사절'이라고 부른다. 관형사절 중에는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구)와 동일한 명사(구)가 빠져 있는 관형사절이 있다. 그 생략된 명사(구)는 관형사절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해석된다.

<보기 2>

ㄱ.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ㄷ. 우리 동네에는 500년 된 나무가 있다.
 ㄹ. 내가 어제 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ㅁ.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ㄱ, ㅁ	ㄹ
④	ㄷ, ㅁ	ㄹ	ㄱ, ㄴ
⑤	ㄹ	ㄱ, ㅁ	ㄴ, ㄷ

1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의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나는 네가 웃는 이유를 물었다.
 ㉡ 암벽등반은 힘들지만 재미있다.
 ㉢ 냇물이 깊어서 아이가 건널 수 없었다.
 ㉣ 비가 올지라도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 내가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 ① ㉠: 두 개의 홑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는'으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② ㉡: 두 개의 홑문장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 두 개의 홑문장이 나열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어)서'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④ ㉣: 두 개의 홑문장이 양보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ㄹ지라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 두 개의 홑문장이 배경이나 상황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는데'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3. 다음 중 '겸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물이 얼음이 되었다.
- ② 그녀는 아주 큰 인형을 품고 있었다.
- ③ 미주가 간식으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 ④ 유진이가 피아노를 열정적으로 연주하였다.
- ⑤ 주혁이는 정말 간만에 잠을 오랫동안 푹 잤다.

14. <보기>는 부사어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 쓰인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어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사→부사어 • 체언+ 부사격 조사→ 부사어 • 구, 절→ 부사어
부사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 수식 •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수식 • 문장 전체 수식
부사어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와 그렇지 않은 수의적 부사어 • 특정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어

㉠ 나는 숨이 차도록 내달렸다.
 ㉡ 방 안은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 매우 험 책인데도 아주 잘 읽힌다.
 ㉣ 형은 학교에서 가방에 책을 넣었다.
 ㉤ 다행히 동생은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다.

- ① ㉠의 '숨이 차도록'이라는 부사절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② ㉡의 '가득'은 부사가, '향기로'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 ③ ㉢의 '매우'는 관형어를 수식하는, '아주'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④ ㉣의 '학교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이고, '가방에'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⑤ ㉤의 '먼저'는 성분 부사어이고, '다행히'는 문장 부사어이다.

1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녀의 동생은 그 가수를 몹시 좋아한다.

- ① '동생'은 문장의 주어로서 주성분이다.
- ② '몹시'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다.
- ③ '좋아한다'는 문장의 서술어로서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④ '그녀의'는 '동생'을 꾸미며, 생략할 수 없는 주성분이다.
- ⑤ '가수'는 '좋아한다'의 대상이 되며 문장의 주성분에 해당한다.

16. <보기>의 ㉠~㉣의 밑줄 친 명사절 중에서 문장에서 동일한 성분으로 쓰인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 지금은 학교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 그녀는 일 년 후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기 좋아한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17.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 ① 나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 ② 내 친구는 방학 내내 세계 여행을 했다.
- ③ 우리 집 강아지는 과자를 아주 좋아한다.
- ④ 할아버지는 언제나 바다 여행을 원한다.
- ⑤ 아빠가 코를 고시는 통에 밤새 잠을 못 잤다.

고2 연매
비상

2025 고2 언어와 매체 비상 I
2(2) 문장의 짜임과 활용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유형

제시된 문장이 어떠한 구조를 지닌 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문장이 어떠한 구조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다음 <보기>의 문장에서 절을 찾아 그 종류를 쓰고, 절의 원래 출문장을 쓰시오.

<보기>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2. <보기>를 읽고, <조건>에 맞춰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다음의 글은 김구의 <백범일지> 중 일부이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 내 과거의 칠십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쓰면 다음과 같다.

- (나는) 내 과거의 칠십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다.
- [A] • (나는)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다.
-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쓰면 ㉠에 비해 각 문장의 내용이 명료하게 전달되지만, ㉡

<조건>

- 이어진 문장이나 안은문장일 경우 그 문장 유형의 하위 개념으로 답할 것
- 문맥에 맞게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할 것

(1) [A]를 고려할 때 ㉠의 문장의 짜임을 설명하십시오.

(2) ㉡에 들어갈 문장을 서술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관형어나 부사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① 겹문장에는 홑문장과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어진문장과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부분이 되는 안은문장이 있다.

② 서술어가 '되다/아니다' 계열인 경우, 그 앞에 오는 성분을 보어라 하는데 보어를 이루는 보격 조사에는 '이/가'가 있다.

③ 문장 성분에는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다른 것을 꾸미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⑤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2. 정답 ⑤

'지난여름을 너와 함께해서(함께하다)'와 '모든 날이 좋았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① '나는 웃었지만(웃었다)'과 '그는 울었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② '나는 선생이고(선생이다)'와 '너는 학생이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당근은 채소이며(채소이다)'와 '귤은 과일이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준호는 빵을 먹거나(먹다)'와 '(준호는) 김밥을 먹는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3. 정답 ③

㉞은 주어(그는)와 서술어(중시한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① ㉟은 '-(으)면'의 종속적 연결 어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② ㉠에서는 '우리가 돌아온(돌아오다)'이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사용되어 전체 문장의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은 '날이 가물어(가물다)', '농사가 힘들어지거든(힘들어지다)', '나를 불러라.'의 세 개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⑤ ㉢은 '-어도'의 종속적 연결 어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양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4. 정답 ⑤

'날씨가 퍽 따뜻해졌지만(따뜻해졌다)'과 '나는 시험기간이라 우울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① '봄비가 내려서(내리다)'와 '벚꽃이 다 떨어졌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내일 비가 오면(오다)'과 '우리 팀은 등산을 못 갑니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스타 선수를 영입했으니(영입했다)'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설사 태풍이 오더라도'와 '나는 꼭 학교에 갈 것이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5. 정답 ⑤

㉤에는 '물이'가 주어로, '얼음이'가 보어로, '되었다'가 서술어로 사용되었고, ㉥에는 '눈이'가 주어로, '내린다'가 서술어로 사용되었는데, 주어, 보어, 서술어는 모두 주성분에 해당한다.

① ㉤의 '아'는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 사용되었다.

② ㉤에는 '인생은(주어)', '아름다워라(서술어)'의 주성분 2개가 사용되었고, ㉥에는 '눈이(주어)', '내린다(서술어)'의 주성분 2개가 사용되었다.

③ ㉤에는 부사어로 '정말'이, ㉥에는 관형어로 '새'가 사용되었다.

④ ㉥의 서술어인 '내린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 서술어인 '쌌다'는 '책'이라는 목적어를 필수로 요구한다.

6. 정답 ⑤

㉦의 주어는 '그는'이고 ㉧의 주어는 '형은'인데, 모두 체언 뒤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① '친구의'는 뒤에 오는 체언인 '신발'을 꾸며주는 관형어이다.

② '신발을'은 서술어로 사용된 동사 '신었다'의 동작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③ '드디어'는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 '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④ ㄴ의 주어는 '형은'이며, '대학생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으로 보어에 해당한다.

7. [정답] ②

'고집이 매우 세시다'라는 문장 전체가 서술절로 사용되고 있다.

① '비가 와서(오다)'와 '마음이 울적해졌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③ '나는 계속 기다렸지만(기다렸다)'과 '그는 오지 않았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④ '체육대회가 끝나고(끝나다)'와 '나는 곧장 집에 갔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남기다)'와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8. [정답] ④

'외국에 다녀왔음(다녀왔다)'이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사용되어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① '귀가 크다.'라는 문장 전체가 서술절로 사용되고 있다.

② '철수가 집에 가기(가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사용되어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목이 쉬도록(쉬다)'이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사용되어 서술어인 '소리쳤다'를 수식하고 있다.

⑤ '내가 (학교를) 다니던(다니다)'이라는 문장이 관형사절로 사용되어 뒤에 오는 명사인 '나무고등학교'를 수식하고 있다.

9. [정답] ③

ㄴ. 주어(그가)와 서술어(되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변호사가'는 보어에 해당한다.

ㄷ. 주어(나는)와 서술어(하고 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ㄱ. '인정이 많으시다'라는 문장 전체가 서술절로 사용된 겹문장이다.

ㄴ. '내가 (그림책을) 선물한(선물하다)'이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사용된 겹문장이다.

10. [정답] ③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A, B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C, D이다. A의 앞 절인 '나는 미술을 좋아하고'와 B의 앞 절인 '키는 크나'가 각각 뒤 절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으나, C의 앞 절인 '비가 와서'와 D의 앞 절인 '수영을 하려고'가 각각 뒤 절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C는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바뀌게 되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A와 B는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② D의 경우 '우리는 수영을 하려고(하다)'와 '(우리는) 수영장에 갔다'가 이어진 문장인데, 두 문장에서 주어인 '우리는'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성분 중 하나를 생략한 후 표기하였다.

④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에서 뒤 절을 앞 절 안으로 넣은 문장인 ㉡을 보면, 부사절이 사용된 겹문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A는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고, B는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데, B에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의미가 바뀐다고 볼 수 없다.

11. [정답] ③

ㄱ. '내가 (책을) 읽던(읽다)'이라는 문장이 뒤에 오는 명사 '책'을 수식하고 있는데, '책'은 ㄱ의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ㄴ.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나가다)'이라는 문장이 뒤에 오는 명사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ㄴ의 원래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었다.

ㄷ. '(나무가) 500년 된(되다)'이라는 문장이 뒤에 오는 명사 '나무'를 수식하고 있는데, '나무'는 ㄷ의 원래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었다.

ㄹ. '내가 어제 (공원에) 간(가다)'이라는 문장이 뒤에 오는 명사 '공원'을 수식하고 있는데, '공원'은 ㄹ의 원래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ㅁ. '숲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주다)'이라는 문장이 뒤에 오는 명사 '혜택'을 수식하고 있는데, '혜택'은 ㅁ의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12. [정답] ④

'-르지라도'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

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양보의 의미가 있다.

- ① ㉠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조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③ ㉢은 두 개의 홑문장이 원인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어)서'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은 두 개의 홑문장이 배경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 '-는데'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3. 정답 ②

'(인형이) 아주 큰(크다)'이라는 문장이 '인형'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사용된 겹문장이다.

- ① '물이'라는 주어와 '되었다'라는 서술어의 관계만이 나타난다. '얼음이'는 보어이다.
- ③ '미주가'라는 주어와 '먹었습니다'라는 서술어의 관계만이 나타난다.
- ④ '유진이가'라는 주어와 '연주하였다'라는 서술어의 관계만이 나타난다.
- ⑤ '주혁이는'이라는 주어와 '잡다'라는 서술어의 관계만이 나타난다.

14. 정답 ④

'넣었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데, ㉠에서 '넣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는 '가방에'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수의적 부사어이고, '가방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 ① '숨이 차도록(차다)'은 서술어 '내달렸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② '가득'과 '향기로'는 모두 부사어에 해당하는데, '가득'의 품사는 부사이며, '향기로'의 '향기'는 체언, '로'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③ '매우'는 관형어 '헌'을 수식하는 부사어이고, '아주'는 부사어 '잘'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⑤ '먼저'는 '도착했다'를 꾸미는 성분 부사어이고, '다행히'는 뒤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15. 정답 ④

'그녀의'는 '동생'을 꾸미며, 관형어에 해당한다. 관형어는 생략 가능한 부속 성분이다.

- ① '동생'은 서술어 '좋아한다'의 주체인 주어로서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② '몹시'는 서술어 '좋아한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 ③ '좋아한다'는 문장의 서술어로서 주성분에 해당한다.
- ⑤ '가수'는 서술어 '좋아한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주성분에 해당한다.

16. 정답 ③

㉠과 ㉡은 명사절이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과 ㉣은 명사절이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17. 정답 ⑤

'아빠가 코를 고시다'가 의존 명사 '통'을 꾸미는 관형절로 사용된 겹문장이다.

- ① 주어 '나는'과 서술어 '세운다'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② 주어 '친구는'과 서술어 '했다'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③ 주어 '강아지는'과 서술어 '좋아한다'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④ 주어 '할아버지는'과 서술어 '원하신다'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18. 정답 ⑤

㉠은 형용사의 어간 '예쁘-'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결합해 명사 '한복'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 ① ㉡은 명사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해 관형어로 쓰였다.
- ② ㉢은 명사 '희망'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고,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에 연결 어미 '-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 ③ ㉣은 수관형사 '한'이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 ④ ㉤은 명사가 보격 조사 '이'의 결합해 보어로 쓰였다.